**경외로운 계시를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마스 주남**

2010년2월24일



저는 2009년에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일어나지 않아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2010년 첫주에 주님은 저에게 휴거가 2009년에 일어날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단지 아주 짧은 시간동안 늦추었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2010년이 시작되어서부터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급하게 휴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휴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휴거가 지금 어느 순간에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있다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2010년 2월24일에 저는 주님에게 휴거가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휴거의 환상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온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소리가 저의 배 속에서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분정도 그런 소리가 난 후에 저는 새로운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방언은 거룩한 천국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른 더 아름답고 더 큰 소리로 새로운 천국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저는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큰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제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았고 아주 선명한 휴거의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묘지에서 아주 많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공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로 가득차는 것을 보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휴거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저의 가족과 저의 새 몸도 또한 공중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구름 윗부분에 아주 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고 또한 구름 위에 주님께서 사람들의 중앙에 서 계셨고 사람들은 주님을 둘러 모여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휴거환상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 책에서 보여주셨던 휴거를 포함하여 휴거의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나 이번 광경은 전에 것들보다 매우 달랐습니다.

과거2년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번 휴거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나 결코 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저의 웹싸이트와 또한 한국의 천국카페에 게시하여 사람들이 읽고 휴거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천국 본향 집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주님을 찬양합니다. 14년전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이후, 제가 결코 빼먹지 않는 하루 네 번의 기도후마다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를 방문해주심을 모든 천국책 독자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후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은 많은 것들에 대하여, 특히 천국에 대하여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있게 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은 매우 신실하십니다. 휴거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욕망에서 죽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4:22절을 읽으세요.

Ω행1421. 그리고 그들이 그 성(城)에 복음을 전파(선포)하고, 또 많은 이들을 가르친[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후에,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히 굳히며, 믿음 안에 계속 머물기를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면서, 또 반드시 많은 핍박의 시련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하면서, 그들이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가치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겪은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29절을 읽으세요.

빌0129. 이는 그분 위에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으며, 또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듣는 바로 그 시합[아곤:(인도되어진) 회합의 장소,거기서 개최된 경기,시합,노력,걱정,투쟁,논쟁,싸움]을 겪으면서,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파스코: 고난 당하다,환란을 받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음[카리조마이:호의(은혜)로서,(친절,용서,구조하는 의미에서) 아무 이유없이 허락하다,인도하다,(솔직하게) 용서하다,탕감하다]이라

이 계시의 글을 읽는 분들이 지금 어느 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휴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한분 한분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주남